



운명(運命)을 바꾼 원요범(袁了凡)

인간의 화복(禍福)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실이 화(禍)와 복(福)이 되는 이치를 깨달아서 바르게 실행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넘어선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 원요범(袁了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생계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의학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예언가 공(孔) 선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 선생은 원요범이 의학을 그만두고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다. 그리고 몇 살이 되는 어느 해에는 어떤 시험에 몇 등으로 합격할 것이며 자식도 없이 53세의 나이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

원요범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 선생의 예언이 적중해가는 것을 알게 되자 인생에는 운명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원요범이 운곡(雲谷)선사를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다. "모든 것이 팔자소관인데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원요범에게 운곡선사는 "인생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나간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닦고 복을 짓게 되면 오늘 이후부터 새로운 복의 과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말해주었다.

운곡선사의 말에 감명을 받은 원요범은 이전까지 '학해(學海)'였던 호를 '평범한 생활을 마친다.'는 뜻에서 '요범(了凡)'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생각과 몸가짐을 바르게 갖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주위사람들에게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매일 '공과격(功過格)'이라는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좋은 일을 몇 가지나 하였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책하고 경계하였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

을 보시하기도 하고 기구한 운명으로 팔려가게 된 사람들을 사들여 놓아주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부인과 함께 열심히 공덕을 쌓아나갔다.

그런 덕분에 팔자에 없다는 아들도 얻게 되었고 3000공덕을 서원하고 이룩한 뒤에는 현감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원요범이 52세가 되던 해에 중국 명나라의 임금인 원요범에게 당시 임진왜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 조선으로 조선원군 부총사령관이라는 직책으로 전장에 나가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를 조선으로 내보내는 임금이 말은 "음덕(陰德)을 많이 쌓은 사람은 살상(殺傷)이 많은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있어도 그곳은 평화와 조용함이 깃들고 승전(勝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53세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조선과병이라는 인연으로 달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원요범은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부처님, 저는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원을 하였다. 조선에 도착하니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접전만 하면 승전하고 있으니 다시 회군하라는 임금이 명령을 받고 명나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기초하여 69세에는 아들을 위하여 운명에 속지 말고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인생의 지침서인 <요범사훈>을 저술하였다. 원요범은 예언가가 말한 정명보다 20년을 더 살다가 74세에 일생을 마쳤다.

인간의 화복(禍福)은 '사주팔자(四柱八字)'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며, 천지신명(天地神命)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실이 화(禍)와 복(福)이 되는 이치를 깨달아서 바르게 실행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넘어선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수녀의 요가 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찬바람이 코끝을 정하게 시리게 하고 뼈 속 깊이 스며들면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해주고 혈액순환이 무엇보다 원활해야 한다. 세포활성화로 온열 효과를 내는 반신욕이나 좌욕을 하면 허벅지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좋으며, 따뜻한 돌(현무암, 온도는 40~50도 적정)로 마사지 하는 것도 세포 활성화로 온열 효과를 내므로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몸을 부지런히 많이 움직이며,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고, 양심대로 살며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하는 요가 운동으로 꾸준하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동작을 반복한다. 신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행복한 관절과 근육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보세요.

앞드려 상체 비틀기!!!

효능: 앞드려서 휴식하며 전신을 이완시키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근육의 불편한 쪽을 자주 수련한다. 상체를 넘겨 옆구리 군살을 제거, 날씬한 허리 라인을 만들어 준다. 골반 다이어트와 균형을 통해 탄력 있는 엉덩이 라인을 만든다.

동작①: 앞드려서 다리를 붙이고 누워 전신을 편안하게 하고 각지 긴 손을 머리 위에 얹는다. 호흡을 반복하며 10초 유지.

동작②: ①번에 이어서 오른쪽 팔꿈치를 짚고 호흡을 마시며 왼쪽 팔꿈치를 들어 상체를 뒤로 넘긴다. 10초 유지. 양쪽 각각 5회.

앞드려서 비행기!!!

효능: 어깨 허리근육을 풀어주며 척추 기립근 강화. 상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



不以兵强天下

불이병 강천하

무력으로써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도덕경 30장 해설

천하는 인간의 의지(감정과 욕망)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앞 장에서 배웠다. 억지로 천하를 지배하려 하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자연재해, 기상이 변이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훼손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천하의 으뜸인 인간을 강제한다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 인간의 의식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당시자와 국가는 비참하게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돼버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를 닦는 사람은 인간과 만물이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자이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

고 넘친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무도한 세상이면서 무도한 자가 힘을 갖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이 때에 부득이 의로운 거사를 단행하여 불의로운 것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군대를 일으켜 천하를 안정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을 위해 무도한 군주가 함부로 군대를 일으킨다면 응당 거기에 따른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 장을 통해 통치자와 지도자는 분명히 깨달을 일이다.

以道佐人主者(이도좌인주자): 도로써 군주를 보좌하는 사람은

도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도인은 모든 인간과 만물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우주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한다. 이 도인이 세상의 군주를 보좌한다면

不以兵强天下(불이병강천하): 무력으로써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其事好還(기사호환): 그 일이 곧잘 되돌아온다

어쩔 수 없이 군사로 천하를 강제하는 일이 곧잘 생긴다.

師之所處(사지소처), 荊棘生焉(형극생연): 군사가 거하는 곳에 싸리나무와 가시나무가 자라나고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치르고 나면 거기에는 쓸모없는 싸리나무와 가시나무가 자라게 된다.

大軍之後(대군지후), 必有凶年(필유흉년), 善果而已(선자과이): 대군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선한 자는 결과를 이룬 후 그만둘 줄 알고

도를 닦는 선한 사람은 전쟁을 치른 후 속히 그만둘 줄 알고

不敢以取強焉(불감이취강연): 감히 무력을 취함으로써 강제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무력을 써서 강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果而勿矜(과이물궁): 결과를 이루었으면 자랑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전쟁의 공과를 자랑하지 말고,

果而勿伐(과이물벌): 결과를 이루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벌하지 말지며,

果而勿驕(과이물교): 결과를 이루었으면 교만하지 않고,

전과를 이루었더라도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果而不得已(과이부득이): 결과를 부득이 이루었던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 결과를 얻었더라도

果而勿強(과이물강), 物壯則老(물장즉노): 결과를 이루었되, 강제하지 않는다, 만물이 한창 왕성하다가도 곧 쇠하기 마련이니

是謂不道(시위부도): 이는 도라 할 수 없다

소위 이러한 생로병사의 순환원리를 따르는 것은 진정한 도라 할 수 없다.

不道早已(부도조이): 도가 아니면 빨리 끝나는 것이다.

영원불변한 도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조기에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만물은 모두가 신이다

1980년 10월 15일, 마귀를 박멸소망하시고 구세진언으로 탄생하신 승리자 정도령께서 제일성으로 "인간은 물론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신이다"라는 폭탄선언을 하셨다. 즉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간혀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셨던 것이다. 유사 이래 이와 같이 신의 소재를 밝힌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승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밝히셨는데 다행히 "작이 있어야 진리"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남기셨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즉,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기가 응치자면 보이는 물질이 되고, 보이는 물질이 흩어지면 기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모든 물질은 미립자이면서 생명력을 지닌 에너지이다"라는 승리자의 선언과 일치한다.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은 물질과 에너지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기(氣)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과학적인 용어로는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다. 또 신과학에서는 우주의 공간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에너지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氣) 에너지야말로 신과학의 핵심요소인 동시에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적(集積)시킬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도 물질(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결국 기(氣)라는 생체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氣)는 가공의 존재가 아니고, 생체에너지로서 실존한다고 일본의 이케미 교수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만물이 모두 미립자요 생체에너지요 그 속에는 생명의 실체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니, 불경의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일심동체(一心同體)라는 말이 진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은 상호존하고 있으며 우주 전체가 통일성(統一性)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양사상 또한 진리인 셈이다. 인간의 육체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로 영묘(靈妙)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아인슈타인이 밝혔고, 절대영도에서도 진동에너지가 가득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영점에너지'라고 표현하였으며 이와 같은 미립자 차원의 우주를 양자물리학자들은 '영점(零點) 공간(空間)'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영점공간이야말로 무한한 정보창고요 영혼의 공간이요 종교인들의 갈구하는 영생, 구원, 해탈을 주관하는 예텐동산이요 승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구세주의 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대권좌(大權座)에서 온 우주를 항하여 갈로이슬을 한없이 분출하시며 신천신지의 대역사를 감행하고 계신다.*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역곡재단 : (032)343-9981-2	부산재단 : (051)863-6307	마산재단 : (055)241-1161	사천재단 : (055)833-7866	광주재단 : (062)524-4555	神戸祭壇 : (078)862-9522
수원재단 : (031)236-8465	영도재단 : (051)912-7582	진주재단 : (055)745-9228	포항재단 : (054)292-5455	대전재단 : (042)522-1560	下関祭壇 : (0832)32-1988
안성재단 : (031) 673-4635	김해재단 : (055)327-2072	울산재단 : (052)291-1849	순천재단 : (061)744-8007	청주재단 : (043)233-6146	久留米祭壇 : (0942)21-4669
평택재단 : (031)652-6438	충주재단 : 010-9980-5805	진해재단 : (055)544-7464	정읍재단 : (063)533-7125	금마재단 : (063)853-6673	岐阜祭壇 : (0584)32-1350
이족재단 : (031)672-6786	대구재단 : (053)474-7900	영천재단 : (054)333-7121	군산재단 : (063)461-3491	橫濱祭壇 : (045)261-6338	大阪祭壇 : (06)6451-3914

전국재단 및 해외재단 연락처

神奈川祭壇 : (045)451-3150 London : (0208)894-1075
Philadelphia : (215)722-2902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